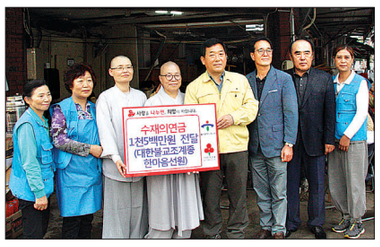
水魔의 고통, 부처님 자비로 품다
〈수마〉

울산 한마음선원, 수해 피해 지역서 '봉사행' 펼쳐


울산 한마음선원은 태풍 차바로 피해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10월 9~15일 공양 나눔행을 펼쳤다.

피해 상인 지원 받을 길 없어
신도들 힘 모아 3000만원 후원
봉사자 위한 새벽 공양 나눔도
"지속 관심 · 후원 이어갈 것"



울산 한마음선원은 피해 상인들을 위한 후원금 총3000만원도 전달했다.

태풍으로 인해 가득 찼던 물과 진흙탕은 사라졌다. 하지만 울분과 상처는 여전하다. 수마가 할퀸 상처로 집기류는 물에 잠겼고 소중히 아꼈던 물건은 쓰레기가 됐다. 벽지는 찢어졌고 그 사이로 회색 콘크리트가 보였다.

울산 중구청에 따르면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지역 피해액이 총 495억 원이다. 지난 10월 10일 국민안전처는 울산 침수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울산 중구에 위치한 태화시장은 재난지역서 제외돼 상인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게다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도 침수된 기기 및 보수 공사를 대부분 상인이 부담해야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러한 울산 상인들과 주민들의 고된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나누기 위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 이하 울산 한마음선원)이 나섰다.

태풍 직후 10월 6~8일 울산 한마음선원 신도 50여명은 수해 피해 가정을 방문해 정리 및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9~15일은 매일 새벽 공양을 준비했다.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현장에 방문 했을 때 봉사자들이 김밥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보고, 좀 더 나은 음식으로 봉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울산 한마음선원은 10월 13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울산 북구청에 1500만원, 중구청에 1500만원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울산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았으며, 울산 한마음선원서 힘을 보탰다. 전달식서 지원장 혜안 스님은 "피해에 비하면 적은 액수로 생각된다. 하지만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여러 봉사자들 가운데서도 진심을 다해 신경 써주심이 느껴졌다"며 "피해 지역 상인과 주민을 위해 이 성금을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봉사자들은 수해가 복구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특히 봉사자 가운데는 직접 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봉사에 합류해 감동을 준 사례도 있다.

이경희(57 · 북구 원지동) 씨는 "집에 물이 갑자기 차올랐다. 지붕만 남겨두고 물로 가득차 중요한 물건을 챙길 수도 없었다"며 "그런데 바로 다음날 한마음선원 신도님들이 와주셔서 말끔히 정리해주고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다. 한탄하고 원망하기 보단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화(61 · 청곡동) 씨는 "직접 현장에 가보니 말문이 막혔다"며 "마치 진흙 개펄처럼 지나가기도 힘든 곳을 스님들이 먼저 앞서 가며 도와주는 것을 보고 마음을 더 낼 수 있었다. 봉사의 손길이 아무쪼록 그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랄 뿐"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울산 한마음선원은 피해지역 복구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울산 한마음선원 총무 혜자 스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자들을 지켜보고 후원하며 피해지역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봉사행에 함께해 준 신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피해 입은 많은 분들이 어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도하겠다"고 응원했다. 하성미 기자

"천일동안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할래요"

황룡사 어린이들, 10월 9일 천일관음기도 입재


황룡사는 10월 9일 경내 법당에서 '천일관음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울산 황룡사(주지 황산)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1000일동안 관세음보살님께 마음 모아 기도할 것을 서원했다.

황룡사는 10월 9일 경내 법당서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에는 주지 황산 스님, 학부모, 포교사단 등 100여명과 어린이와 청소년 60여명이 참여했다. 천일기도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각 가정에 수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작성한 '매일 매일 천일기도 수첩'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수행을 다짐했다.

주지 황산 스님은 "사랑한단 것은 '생각해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기도해 주는 것"이라며 "매일 누군가가 잘되길 기도하면 그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이 보시고 10배의 복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번 입재식에 참여한 학부모와 자녀는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으로 기대했다.

이명숙(46 · 울산 복산동) 씨는 "부모들은 아이들보다 일주일 전 입재했다. 집에서 먼저 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잘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도반으로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고 말했다.

이지영(19 · 학성여고) 학생은 "고3이라 머릿속은 대입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다. 관세음보살님께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도하면 쉽도 찾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낯설지만 새로운 시도를 통해 불심을 다지겠단 가족도 있었다.

이혜빈(13 · 울산 복산동)과 이연주(9) 자매는 "집에서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나도 한다고 생각하니,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걱정도 약간은 앞선다"며 "하지만 해내고 나면 뿌듯하고 기쁠 것 같다. 부모님과 함께 절하고 수행하며 건강과 지혜를 발원하는 부처님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황룡사 어린이들은 2016년 10월 9일~2019년 10월 17일 관세음보살기도를 이어간다. 참여하는 아이들은 매일 집에서 삼귀의 후 108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발원문을 낭독한다. 이후 부모님께 삼배를 올리면 황룡사서 나눠 준 '매일매일 천일기도 스탬프 수첩'에 도장을 찍고 수행확인을 받는다. 이 수첩을 가지고 황룡사에 오면 템플머니를 받는다. 어린이들은 템플머니로 어린이회가 마련한 장터서 다양한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황룡사는 천일을 마무리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은 어린이를 위해서 노트북 혹은 스마트 폰 등 고가의 선물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황룡사는 현재 울산에서 도심 포교 전법도량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육 시스템을 적용해 매주 100여명의 학생들이 법당을 찾고 있다. 하성미 기자

"국민화합 · 재난소멸 기원합니다"

경주 분황사 · 불국사, 재난소멸 기원제 잇달아 봉행



경주 분황사는 10월 8일 경내서 '제20회 원효예술제 및 재난소멸 기원제'를 봉행했다.

국민화합과 자연재난 소멸을 기원하는 자리가 경주 지역서 연이어 펼쳐졌다.

경주 분황사는 10월 8일 경내서 '제20회 원효예술제 및 재난소멸 기원제'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주지 종우 스님, 최양식 경주시장,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 이진락 배진석 도의원 등 500여명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관장 종상 스님은 '자연재난 소멸 기원문'을 통해 "저희 중생들이 지은 죄업과 번뇌장 · 업장 · 보장 등 일체 마장장애가 영원히 소멸되고, 묘법륜이 무진찰토에 상전해 불법이 더욱 융창해지길 바란다"면서 "또한 이 땅에 앞으로 지진해일 등 모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중생들이 불안과 공포서 벗어나 안온함을 얻게 되길 바란다.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은 하루속히 회복돼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더욱 발전하고 번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경주 불국사도 7일 경내 범영루 광장 앞서 '제44회 영산대재 및 재난소멸 기원대재'를 개최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정오 스님, 한글날 경축식서 시장 표창

한글 널리 알린 공로 인정


'부산시 한글날 경축식'서 기장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이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부산 시청 대강당서 열린 '부산시 한글날 경축식'서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이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정오 스님은 해외교류를 통해 중국인 유명 서예가에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은 "한글을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세종대왕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미 스님이 한글 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한글 제작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펼치신 것이다. 이 뜻을 기억하고 앞으로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과 후원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한글학회는 10월 16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서 '제14회 한글서예 한마당 및 부산 · 상해 문자예술교류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는 천년고찰 장안사와 문화사찰 청량사의 협찬으로 열렸다. 하성미 기자

"생명 희망 안고 함께 걸어요"

제8회 생명나눔 걷기대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10월 9일 '희망세상 만들기 제8회 생명나눔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부산 생명나눔)는 10월 9일 부산시민공원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8회 생명나눔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걷기대회는 오랜 투병생활에 지친 환우를 돕고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 생명나눔이 매년 개최하는 캠페인이다. 올해 행사엔 불자 및 시민 2000여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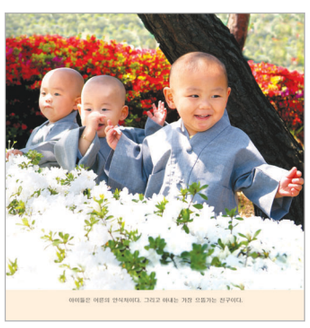
본부장 원범 스님은 "오늘 참가한 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서고 걸을 수 있는 일상을 감사히 여기길 바란다"며 "오늘 우리의 걸음이 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며 찾아준 모든 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 생명나눔은 환우에게 휠체어를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풍선아트 · 무료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해 즐거움을 더했다. 걷기대회 후엔 음악세상과 동아대 A.LES 응원단과 추첨행사 등이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12절 258㎜×265㎜
100부 이상 @ 1,000원
3천부 이상 @ 8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 121068-56-042256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